

CJ제일제당

중국 사료사업 총괄 강세원 박사 임명



CJ제일제당 사료BU(BU장 박호인 부사장)는 글로벌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중국 사료사업 총괄에 강세원 박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세원 박사는 서울대에서 축산학 박사학위를 받고 1985년에 사료업계에 투신해 카길애그리퓨리나에서 마케팅과 전략사업개발, 중국 사료사업담당 등을 역임한 축산업계의 재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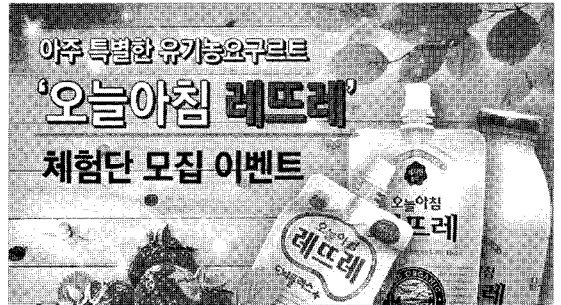
한편 CJ 중국 사료사업은 지난 2002년 진출 이래 8개 공장에서 870여명의 임직원이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2년 사천성을 필두로 요녕성, 산둥성, 허북성, 허남성, 강소성, 흑룡강성, 호남성, 등지에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며 고객농장의 수익을 창출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세계 제2의 사료시장인 중국에서 세계 유수의 축산회사와 경쟁하면서 대한민국 사료 브랜드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고 있다.

(주)트루라이프

유기농 요구르트 '오늘아침 레뜨레' 체험단 선정

(주)트루라이프(대표이사 정세진)에서 새 봄을 맞아 진행한 '아주 특별한 유기농 요구르트 오늘



아침 레뜨레 체험단 모집 이벤트'가 지난 4월 26일자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주)트루라이프는 지난 4월 30일 이벤트 참가자 중 총 20명을 뽑아 유기농 오늘아침 레뜨레 선물세트(요구르트 1병, 파우치 2팩, 레뜨레 두뇌플러스 3팩, 오늘먹는 유정란과 신선란 각 1팩씩)를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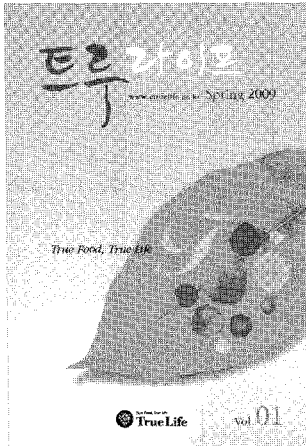
이번 무료 이벤트에 선발된 체험단은 오는 5월 17일(일)까지 시음 후기를 올리는 미션을 수행하면 되는데 이벤트 종료 후 우수체험자 3명에게는 5만원권 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한다.

(주)트루라이프 홍보팀 남민정 팀장은 "이번 이벤트는 유기농 수제 발효유 오늘아침 레뜨레의 품질력을 직접 확인하고, 고객 입장에서 생생한 의견과 평가를 공유 전파하도록 기획한 캠페인"이라며 "무료 시음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믿고 신뢰할 수 있으며, 요즘 같은 불경기에 경제적 혜택을 주는 알찬 행사"라고 덧붙였다.

'오늘아침 레뜨레'는 레시틴+뜨레('많다'라는 뜻의 불어)의 합성어로 짜낸지 30분내의 유기농 원유에 일체의 화학첨가물을 넣지 않고, 국내 최초로 두뇌 및 혈행 개선에 좋은 레시틴을 첨가한 목장 수제 유기농 요구르트다. 전국 택배 가능하다.

■ 문의 : www.etrulife.com

사보 'True Life' 발간



(주)트루라이프·서부사료(주)가 사보 'True Life'(이하 트루라이프)를 새롭게 발간했다.

지난 2007년 5월 'True People'이라는 사내보로 시작해 기업문화를 전파하고 임직원간 커뮤니케이션 통로로서 큰 역할

을 한 사내보의 판형 및 볼륨을 확대하고 고객 중심 콘텐츠를 강화하여 사내외보 '트루라이프'로 개편 발행했다.

그간 타블로이드 판형에 임직원이 주 독자층이었던 'True People'을 업그레이드시킨 '트루라이프'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국 식품 고객까지 아우르는 사내외보로 확대된 것.

봄 호는 총 24페이지로 유기농 요구르트 오늘 아침 레뜨레의 우수 고객 품평기, 계란과 요구르트를 이용한 요리 제안 등 식품 콘텐츠, 식문화 및 트렌드를 조명하는 전문 칼럼과 정보 기사, 신입사원 인터뷰 및 품질보증팀 현장 탐방, 회사 및 관계사 뉴스 등 사내 소식 등으로 채워졌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여 참여 독자에게 경품 선물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사연응모, 글짓기, 요리법 공개 등 직접 사보에 게재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독자와 함께 만들어 가는 사보를 지향한다.

'트루라이프'는 계간으로 발행되며, 구독을 원

하는 고객은 홍보팀(031-903-6953~4)에 신청하면 된다.

(주)고려비엔피

'달구방 N+, ABBN+' 제품설명회 개최



(주)고려비엔피(대표이사 송기연)는 지난 3월 20일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달구방N+, ABBN+' 제품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강의는 김선중 바이오포아 고문(전 서울대 수의대 학장)의 최근의 ND(양계 뉴캐슬병)에 대한 강의와 신제품인 '달구방 ABBN+' 백신을 시험했던 안일농장의 안영기 사장의 실증사례 발표순으로 이어졌다.

고려비엔피의 대리점과 산란계 대군 농장, 인티 회사 등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이날 제품설명회에서 김선중 고문은 한국을 비롯한 동남 아시아, 유럽에 이르기까지 ND의 유전형이 7형으로 변환되었고 현재의 모든 백신은 1형·2형으로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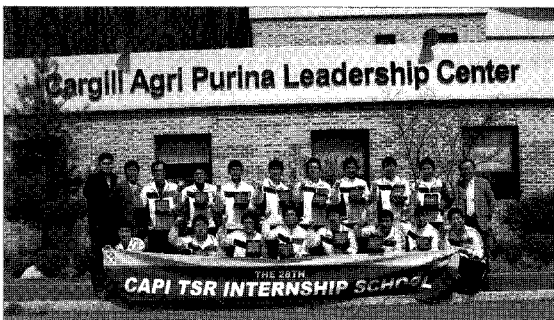
업·계·소·식

들어지고 있어 방어력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한 상황을 설명했다. 또 현재 유행하는 7형 바이러스를 역 유전학 기법으로 융합해 현재의 유행 ND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게 된 배경 및 기술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안영기 사장은 실증사례를 통해 '달구방 ABBN+' 백신을 접종한 계군에서는 ND의 발생이 없어 그 전 계군에 비해 수당 3,300원에서 11,500원에 이르는 이익이 더 생긴 것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주)카길애그리퓨리나

'판매과장 인턴십 스쿨' 개최



(주)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이사 이보균)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카길애그리퓨리나 판매과장 인턴십 스쿨'을 열어 성공리에 수료식을 마쳤다.

'판매과장 인턴십 스쿨(Technical Sales Representatives Internship School)'은 전국 특약점·사업소의 신입 판매과장 및 카길애그리

퓨리나의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매년 두 번씩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총 26명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인천에 위치한 카길애그리퓨리나의 연수원인 리더십 센터에서 3주간의 합숙으로 강도 높은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육은 양돈, 축우, 양계 등 각 축종별 생리적 특성, 사양관리에서부터 질병 및 방역, 카길애그리퓨리나의 사료 프로그램, 컴퓨터 기초 및 돈컴 21, 비프텍21, 파워밀텍21 등의 전산프로그램 교육, 고객 응대 요령, 판매를 위한 실전 훈련 및 판매기법(BEST), 농장 및 공장, 중앙실험실 견학 등으로 현장 실무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조인(주)

2009년 1/4분기 팀장회의 개최



조인(주)(회장 한재권)는 지난 4월 17일 2009년 1/4분기 팀장회의 및 JOIN Advanced Education II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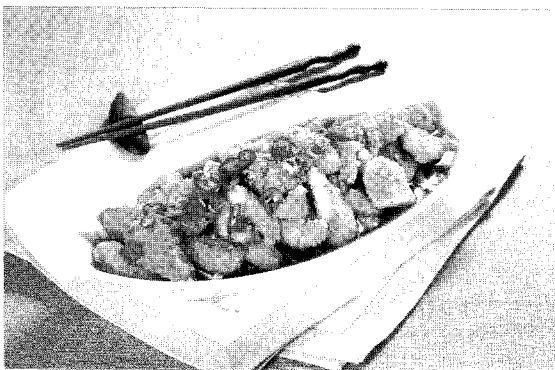
조인의 각 본부는 어렵고 힘든 대내외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2009년에도 어김없이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팀장들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 성과들로 부푼 기대를 안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한재권 회장은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좀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누구에게나 있는 기회를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 성공하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방법을 바꿔 끊임없이 변화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촌에프앤비(주)

신제품 ‘소이살살’ 출시



교촌에프앤비(주)(대표이사 권원강)는 최근 신제품 ‘소이살살’을 출시했다.

2008년에 출시된 살살시리즈 1탄 ‘살살치킨’이 순살치킨으로만 이뤄졌다면, 이번에 출시된 ‘소이

살살’은 메뉴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5가지 채소에 살살치킨을 간장소스에 버무린 제품이다. 담백한 살살치킨에 채소의 이삭함이 간장소스와 어우러져 상큼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에 개운한 뒷맛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출시되는 ‘소이살살’은 기존 치킨 메뉴들과는 달리 식어도 제 맛을 낼 수 있어 봄철을 맞아 야외 나들이용 간식으로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것 또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이살살’ 출시와 더불어 교촌치킨에서는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신제품 출시기념 이벤트와 함께 지역별로 무료시식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이살살’의 소비자가격은 16,000원이다.

(주)제너시스 BBQ

정육점 사업 진출 선언

(주)제너시스 BBQ(회장 윤홍근)는 전국 5만여 개 기존 정육점 가운데 일부를 자사 프랜차이즈로 유치하거나 신규 개점을 통해 정육점 가맹점을 앞으로 5,000개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지난 4월 13일 밝혔다.

BBQ 관계자는 “육류 유통 전문 자회사 GNS M&F를 설립해 지금까지 닭 외식 위주로 해왔던 사업을 육류 유통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전라도, 황성군, 건국대와 육류 및 육류 가공품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상황”이라며 “아직 브랜드 이름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